

KOREAN AIR NAVIGATION



대한항공은 로스앤젤레스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Los Angeles daily.

● **찾아가는 길** 로스앤젤레스에서 벨리즈 필립 골드슨 국제 공항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이 매일 있다. 5시간 소요. 벨리즈 시에서 카요와 산페드로를 연결하는 국내선이 있고, 벨리즈 시에서 수상 택시로 산페드로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벨리즈 전국을 운행하는 버스는 승차감이 좋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간혹 홍수로 일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우기를 피해 12월부터 5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추천 숙박지** 카요에 위치한 이언 앤더슨의 케이브 브랜치 정글 로지는 벨리즈의 열대우림에 있다. 마야인이 드나들던 동굴이 곳곳에 위치한 거대 밀림 속에 자리 잡은 이곳은 주변을 절대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객실은 모두 딱딱한 카바나부터 나무 위에 마련된 트리하우스까지 다양하다. 산페드로 북쪽에 위치한 마타치카 비치 리조트에는 넓은 카바나 객실이 갖추어져 있고, 수상 스포츠가 리조트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 **추천 먹을거리** 벨리즈의 음식은 카리브 해와 남미 지역의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타코, 타말레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크레올계, 메스티소계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카요와 산페드로 곳곳에 있다. 라틴 및 메스티소계 별미인 돼지고기 요리 코치니타 피빌, 바나나잎에 생선을 싸서 찐 마야식 생선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카요의 '코옥스 한나'와 산페드로에 있는 '엘비스 키친'을 추천한다. 주말이면 그릴에 구운 바비큐 치킨을 파는 노점아 식당 주변에 돌아서기도 한다. 산페드로에는 '레드 진저'와 '카사 피카소'가 토속 음식을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인다.

● **여행 명소** 기원전 400년경 지어진 수난두니치는 가장 잘 보존된 마야 유적지 중 하나로, 한때 1만 명의 마야인이 살았던 곳으로 전해진다. 눈여겨볼 곳은 चे시 의식이 행해지던 광장 3곳과 40미터 높이의 피라미드 알 카스티요다. 산페드로 해안에서 1.6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출칸 해양 보호구역에서는 그림 같은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즐겨보자.

● **GETTING THERE** There are daily flights from Los Angeles to Belize City's Philip Goldson International Airport, including a direct route every Saturday. Flight time is just under five hours. Belize's domestic airlines connect to Cayo and San Pedro. Water taxis depart from Belize City to San Pedro throughout the day. Buses run countrywide and offer a glimpse at local life.

● **WHERE TO STAY** Ian Anderson's Caves Branch Jungle Lodge in Cayo is one of the premier rainforest lodges in Belize. Set in 23,471ha of jungle dotted with Maya caves, the resort is clear about not being "sanitized from its surroundings" and offers thrilling excursions. Rooms range from basic cabanas to luxury treehouses. The upscale Matachica Beach Resort, north of San Pedro, offers spacious cabanas and all-inclusive watersports.

● **WHERE TO EAT** Belize's cuisine reflects its dual Caribbean and Latin identity. Aside from popular snacks (tacos, tamales), Cayo and San Pedro are known to offer

the best Creole and Mestizo — Mayan and Spanish — restaurants. Creole favorites include stewed chicken or beef, served with coconut rice and beans, or white rice and stewed beans. Latin and Mestizo specialties — cochinita pibil (slow roasted pork) and Mayan fish (steamed in a banana leaf) — are excellent at Ko-Ox Han-nah in Cayo and Elvi's Kitchen in San Pedro. Seafood is plentiful, with in season, lobster or conch ceviche washed down with beer. Red Ginger and Casa Picasso in San Pedro offer creative takes on local dishes.

● **SIGHTS** Built around 400BC, Xunantunich is one of Belize's most beautifully preserved Maya sites, once home to 10,000 Mayans. Highlights include three ceremonial plazas and El Castillo, a 40m high pyramid. A snorkel or dive trip to Hol Chan Marine Reserve, under a mile from San Pedro's shores, offers a glimpse of the reef's vibrant corals and marine life.

자세한 문에는 [관광객용으로 문의하십시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HUMAN TRAVEL](#) [www.katour.com](#)



케이브 브랜치 강가의 로지
Jungle lodge on Caves Branch River

© Erico Martini/Lightmediation